새로운 도약 글로벌+융합 도시 인천 중구

- 인천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
회 의 록

회 의 명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일 시	2022. 9. 30.(금) 10:00 ~ 11:00		
장 소	제1청 서별관 2층 회의실		
참석현황	참석대상	참석인원	불참인원
	10명	10명	0명
안건명	1.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2. 회의 공개 여부의 건 3. 의정활동비 결정의 건 4. 월정수당 결정의 건		

(기획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박여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진동으로 전환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4년간의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개최에 앞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통리장연합회 인천중구지부 황규한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인천지방법무사회 박홍열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중구지회 신용환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백영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인천중구새마을회 윤경원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인천지방변호사회 김의자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인천중구주민자치협의회 이정국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사)인천장애인부모회 중구지부 한상희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중구 구민 정인승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이효진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위촉장은 구청장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우측에 계신 위원님들부터 수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호명받은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전달 및 구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후 퇴장)

(기획팀장)
오늘 회의는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4년간의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책상에 배부해드린 선서문으로 별도의 선서를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서명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성원 보고, 위원장 선출, 의정비 관련 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재적 위원 10분 전원이 참석하여 성원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의 주재하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은 연장자이신 ‘차’ 위원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차’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안녕하세요.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도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안건인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손을 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원) 지금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차’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위원 다수)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 위원) 박수

(임시위원장)
2022년도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출된 ‘차’ 입니다.
뜻하지 않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보다도 능력 있는 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회의 진행을 잘할지 걱정이 되겠지만 회의 진행 중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의정비심의위원회 주요 심의 내용이 ’23년부터 ’26년까지 구의원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그에 따른 많은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모쪼록 회의 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안건으로 ‘회의 공개 여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7항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원) 특별히 공개 안 해야 하는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는 것이죠.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라’ 위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음) 없으시면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자료에 대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녕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입니다.
회의자료 3쪽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기준입니다.

4쪽 3. 의정활동비 산정 부분입니다.
의정활동비란 의정 자료를 수집, 연구,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구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정 자료수집 연구비 월 90만 원 이내, 보조활동비 월 20만 원 이내입니다.
22년도 우리 구 의정활동비는 현재 월 110만 원 / 연 1,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4. 월정수당 산정 부분입니다.
월정수당이란 직무 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22년도 우리 구 월정수당은 월 2,064,320원입니다.
22년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증액 또는 동결, 삭감이 가능합니다.
월정수당 결정 시에는 지역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3년도 월정수당은 확정 금액으로 결정하고 24년도부터 26년도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금액이 나오도록 결정하여야 합니다.

5쪽 4-1. 월정수당 결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역주민 수입니다.
우리 구는 18년도 말 대비 21년도 말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 증감률이 17.2%입니다.
두 번째 재정 능력입니다. 우리 구는 18년도 대비 22년도 재정자립도가 7.54% 감소하였습니다.
세 번째 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은 1.4%입니다.
5쪽 하단부터 6쪽. 네 번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입니다.
연도별 조례 운영현황과 회기 운영현황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4-2. 월정수당 결정 시 금지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월정수당 결정 시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심의회는 월정수당 결정 시 주민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실시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다만, 산정한 23년도 월정수당 금액이 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범위에서 인상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8쪽과 9쪽은 주민 의견수렴의 종류와 절차에 대하여 정리한 부분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부터는 본 회의의 참고자료입니다.
특히 17쪽 붙임 3. 주민소송 판결은 지역주민 의견수렴 시 고려 요소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감사청구에서 주민소송까지 간 사례입니다.

23쪽은 의정비 결정에 관한 중구의회의 의견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심의 과정 중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의정활동비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자료 4쪽입니다.
1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5에서 정한 상한액인 1,320만 원으로 결정할 것인지 2안 상한액보다 감액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원)
의견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기획예산실에서 메일로 두 번이나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은 프린트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몇 번 숙지하고 왔기 때문에 심의의결안에 관한 것은 그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위원) 상한액 1,320만 원으로 결정하자는 건가요?

(’라’ 위원) 네

(’다’ 위원) 다른 분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자’ 위원)
지금 22년도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더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 위원) 이게 상한액입니다.

(’나’ 위원) 감액만 가능하고요.

(’라’ 위원) 두 번째는 감액인 거죠.

(위원장) 최고로 올리는 금액이라는 거죠.

('나' 위원) 그대로 결정하시죠.

('가' 위원)
다른 구도 110만 원으로 하니까, 그대로 결정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음)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20만 원으로 가결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심의자료 4쪽을 봐주십시오.
네 번째 안건인 '월정수당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결정 사항은 두 가지로 1번 2023년도 월정수당과 두 번째 보시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회의자료 5쪽과 6쪽의 고려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동결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구체적으로 몇 % 삭감 또는 인상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원)
공무원 보수인상률 상한을 하게 되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게 되어있는 거죠?

(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나' 위원) 지금 결정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죠?

(기획팀장)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하시면 이 자리에서 결정이 가능하고, 그 이상을 올리기로 결정을 하시면 별도의 주민 설문조사나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나' 위원) 그러면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는 거죠?

(기획팀장) 1.4% 이상으로 하시면 주민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 위원)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비용이나 시간 소요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인상률 안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나' 위원)
지금 구의회 의견을 보면 19% 인상안을 제시했는데요. 지난 회기 때 동결을 했거든요. 2018년도에도 동결을 했고요.

('가' 위원)
그때도 18% 인상을 요구했는데 동결이 된 거고요. 의회에서는 무조건 많이 올리니까 그것을 저희가 감안할 필요는 없을 거 같고, 18%, 19% 올린 적은 없거든요.

('다' 위원)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인구수가 늘어났다고 얘기는 하지만 영종이 늘어난 거죠.

('마' 위원)
자치구별 재정 능력이나 인구 여러 가지 요소는 있겠지만 금액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 같아요. 아니 그런데 수당이 적은 것은 마땅히 인상을 해줘야 하는데 오늘 결정하는 것을 4년간 적용하는 겁니까, 매년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나' 위원)
이번에 결정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보수인상률로 연동시키는 겁니다.

('가' 위원)
오늘 2023년도 금액을 딱 결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024년부터 2026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1년마다 올릴지, 동결을 해야 할지 또 결정을 해야 하는 거죠.

('마' 위원) 물가 인상이나 인구 유입, 재정자립도로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하죠.

('나' 위원)
제가 14년도에 회의에 참석해서 결정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재정자립도더라고요. 우리 인천 중구는 지난번보다는 떨어지긴 했지만, 굉장히 상위권이고, 우리 중구 부를 보더라도 의정비가 10개 구 중에 7번인데 조금 인상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립도는 좋은데 의정비는 적어서 조금은 인상을 해야되지 않을까 합니다.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조금은 인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 위원)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1.4%가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비교해서 올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 위원)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 달에 300만 원씩 1년에 3,6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 위원)
일단은 구의원은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생업으로, 월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히 의정활동비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정자립도는 중구가 인천에서 1위인 것 같기는 해요. 다른 구는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더라고요. 미추홀구나 강화군, 옹진군 이런 곳은 거의 10%대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중구가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재정자립도 또는 예산 규모도 증가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올릴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구홀구, 연수구, 부평구가 의원 1인당 인구수가 2만 7천에서 3만 정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의원 1인당 2만 1천 명 정도 돼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해요.

그다음에 회기 운영 중 의원발의 조례 건수 이런 것도 이전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굳이 이거를 저희가 올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는데 조례 발의 건수가 단체장이 훨씬 많은데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중구의원 매년 1인당 발의 건수가 2.3건이에요. 이게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중구 의회 운영 현황을 보면 4년 동안 발의된 조례가 65건밖에 안 돼요.

저는 사실 다른 구에 비해 일을 열심히 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다른 구에 비해 특별히 중구만 많이 올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시국에 경제가 엄청 어렵잖아요. 경제 침체되고.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1.4%인데 이거보다 더 올려줄 명목이 없어요.
저는 동결이나 올려준다고 하면 1.4%로 올리자는 의견입니다.

('라' 위원)
제가 듣기에는 이번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전에 의원한테 들어보니까 조례 한 건 발의한 사람도 있대요. 4년 동안 한 건 발의했대요. 지금 '가'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1.4% 부분에서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좋은 의견 같습니다.

('나' 위원)
물론 조례 제정을 보면 구청에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법률안 발의하는 거 보면 정부에서 발의하는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단순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 같고요.

('가' 위원)
저는 이제 중구의회가 의견을 냈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어떤 일을 했고, 뭐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자료를 내주셨으면 차라리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하셨네요. 이럴 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마' 위원)
중구의원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바뀌셨으니까 좀 열심히 하라는 당근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위원)
근데 이게 사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입니다.
우리가 동결하면 욕은 우리가 먹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 주민께서 반대하면 우리는 면피입니다.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두 번째 심의에 참석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 정도면 의정활동비 받아서 나가는 돈이 더 많습니다. 이 돈으로 별도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거나 그럴 수 있는 사정은 못돼요. 그건 제가 알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경직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부드럽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 위원) 네

(위원장) 의견이 많은 것 같네요.

('다' 위원) 다른 분들의 전체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동의)

(위원장) 한 분씩 이야기하시죠.

('나' 위원) '라' 위원님부터 말씀하시죠.

('라' 위원)
보수인상률 1.4%, 2022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 위원)
조금 더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버되지는 않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아니더라도 1.4%는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론 다른 인구 서구 같으면 인구 57만에 비교해서 우리는 인구 이제 14만 7천, 8천, 9천인데 거기에 비하면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우리 '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을 한 건 없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요즘은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거저먹는 의원을 했는데, 특히 중구의 경우에, 지금은 공부를 다 열심히 하더라고요. 또 젊은 친구들이 들어왔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조금 더 인상을 해줬으면 합니다.

('바' 위원) 저는 1.4% 인상입니다.

('아' 위원)
개인적인 입장에서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아시다시피 중구는 조금 특별한 지역이잖아요. 가 선거구, 나 선거구 나누어져 있고 왔다 갔다 하는 비용, 시간 이런 거 생각해볼 때, 솔직히 저는 지역이 영종이라서 여기 구청만 오는 데도 넉넉잡아서 1시간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중구 의원님들도 영종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특정 지역이다 보니 공항도 있고 이러니까 솔직히 하시는 일은 눈에 보이는 거는 없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진행하시는 일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했으면, 또 이번 정권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두고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올려 줬으면,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사' 위원)
일단 지금 인천 영종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계속 인구가 늘고 있는 실정도 있지만, 저도 '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의 건수를 봤을 때는, 중구 주민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체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주민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1.4%로 했으면 합니다.

('자' 위원)
저도 이제 '아' 위원님처럼 영종에서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물가 상승이나 그런 거에 비하면 활동하면서 조금 올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가' 위원)
저는 일단, 주민 의견 수렴 비용도 사실 엄청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1.4% 이내나 동결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영종도는 섬이라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옹진군은 섬이 여러 개임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이 17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중구가 특별히 다른 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했을 때, 월정수당이 그렇게 적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결 의견이긴 하지만 올린다면 1.4% 이내입니다.

('다' 위원)
저도 동결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1.4%입니다. 다른 의견은 많이 있어요. 여론조사 비용 만만치 않아요. 경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 '나' 위원님

('나' 위원)
제가 얘기는 충분히 한 거 같고요. 이번에 또 동결되면 거의 8년간 동결되는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조금 의욕이 상실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조금만 고려해주시면 싶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들 생각이시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의견이 따라주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저도 위원이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바뀌고 열심히 활동한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1.4%까지가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 해주시면 내년에 또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내년에 잘하시는 거 보시고 내년에도 모여주시면 의견수렴을 하면 되겠죠.

(기획팀장)
참고로 4년간의 의정활동비는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가' 위원) 오늘 다 결정하셔야 해요.

('나' 위원) 결정해야 돼요.

(기획팀장)
참고로 저희가 18년도에 결정한 거는 19년도는 동결이고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계속 인상을 해오긴 했습니다.

('다' 위원)
한 해만 동결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안에서 결정하는 거죠.

('가' 위원) 상승할 건지 아니면 동결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지금 보시면 1.4%가 6분 찬성하셨고요. 4분이 상향을 했으면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럼 1.4%로 하는 걸로 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을 그렇게 내리면 되겠죠? (이의 없음)
1.4% 인상하는 것으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나' 위원)
또 한 가지 2024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공무원 보수인상률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적게 갈 건인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 위원) 오늘 이 회의로 2024년도도 결정이 되는 겁니까?

('나' 위원)
2023년도까지는 결정이 되고요. 2024년도부터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같이 갈 것인지 그보다 적게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위원장)
첫 번째 안건은 1.4%,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결정이 났고요.
두 번째 안건은 2024년도부터 월정수당 금액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1.4%, 인상률의 1/2, 인상률의 얼마 정도, 동결할 건지를 생각하시고 의견을 내주십시오.

('마' 위원)
차기 선거가 되면 지금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 원도심과 동구를 제물포구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원도심에 사는 한 사람으로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물론 영종에 사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못 사는 분들은 못사는 사람들끼리만 살라고 하니까 속도 상하지만, 또 바꾸다 보면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은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의견을 또 들어보죠.

('나' 위원)
그럼 2023년도는 이 정도로 하고, 2024, 5, 6년도가 남았는데 공무원 보수인상률 그대로 할 것인지 또는 감액을 할 것인지 이런 문제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수인상률 정도는 인상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마저도 깎는다면 의욕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서요.

('다' 위원)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만, 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2 반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위원)
1.4%는 얼마 안 되니까, 1년마다 1.4%씩입니다.

('자' 위원)
저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 위원)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입니다.

('아' 위원)
저도 같은 생각으로, 24년도에도 공무원도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보수인상률만큼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바' 위원)
찬성입니다. 1.4%로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올해는 1.4% 되고 매년 변동이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하시는 겁니다.

('가' 위원)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만약에 1%가 오른다고 그러면 똑같이 1%가 오르는 거죠.

(위원 다수) 그렇죠.

(위원장)
한 분 빼고 전부가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으신 것으로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반영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